단청 속 꽃문양으로 펼친 불국토

노재학 사진전
'한국의 단청, 화엄'

경인미술관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법당 내부 꽃 단청문양 집중 조명
미황사 대웅보전 천정반자 단청 등
법당 200곳 꽃단청 사진 57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해남 미황사 대웅보전 천정반자의 단청문양.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천정반자의 단청문양.

전통건축의 단청문양들을 20년 동안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노재학 사진가가 문화유산회복재단 주최로 사진전을 연다.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한국의 단청, 화엄' 展에서 노 작가는 사찰 단청장엄에서 볼 수 있는 꽃을 집대성했다. 노 작가는 지금까지 110곳의 전통사찰과 약 200곳에 이르는 법당의 단청장엄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이번 전시는 문화유산회복재단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차원으로 마련한 전시로 한국산사 세계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1주년 기념 전시의 중심이 사찰벽화였다면 이전 전시는 한국의 전통사찰 법당 내부를 장엄하고 있는 꽃 단청문양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노 작가가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20년 동안 촬영한 법당 단청장엄 중에서 꽃 단청장엄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진 53점을 선보인다. 단청장엄의 확장과 연속, 비교의 개념으로 궁궐과 유가건축의 단청 사진 4점도 추가해 총 57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사찰의 꽃 단청장엄을 집대성한 유례없는 사진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수백 년 동안 높고 어두운 곳에 있어 쉽게 관상하기 힘들었던 단청장엄의 꽃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궁궐이나 사찰 등 성스러운 전통건축물에서의 '꾸밈'을 이야기할 때는 '장식한다'고 하지 않고 '장엄한다'고 한다. 시각적인 '꾸밈'에서 끝나지 않고 엄숙함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화엄(華嚴)은 그런 장엄의 세계 중에서 '꽃으로 엄숙히 장엄한 세계'를 말한다. 궁궐이나 사찰 등 한국의 전통건축 장엄에서 지속적이면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주형원리가 단청이다. 단청은 글자 그대로 '붉고 푸른 빛'으로, 청 · 적 · 황 · 흑 · 백의 오방색이 쓰인다. 동양철학의 음양오행론에 기초한 오방색은 우주순환의 시간과 공간 방위, 만유 상생의 원리, 사람의 기질까지 연결한 심오한 철학적 특징이 담겨 있다.

단청은 색채 중심의 미술이지만 단청의 바탕엔 문양(文樣)이 있다. 문양은 무늬와 비슷한 개념이면서 다른 결의 개념이다. 무늬는 자연의 것이고, 문양은 무늬를 양식화한 인간의 것이다. 즉 문양은 자연의 무늬를 인간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인문예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청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문양과 오방색의 결합구조이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단청의 중심은 색채가 아닌 문양인 것이다. 단청의 색은 문양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색채는 문양의 본질을 밖으로 드러내거나 깊이 감추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양은 추상과 정신 관념을 담는 상징무늬이다. 법당과 같은 종교적 장엄일수록 문양의 정신 관념은 고도화된다.

한국의 전통사찰에서는 단청문양을 통해 불교교의를 펼치고 불국토를 구현한다. 문자언어로 집대성한 교의세계가 팔만대장경이라면 조형언어로 구현한 교의세계는 법당의 단청문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단청문양에서 꽃이 많이 보이는 것은 〈화엄경〉, 〈법화경〉과 같은 경전의 이름에 꽃을 넣어 불법(佛法)의 광대무변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왔고, 온갖 분별과 대립이 극복된 이상적 불국토를 연화장세계로 불러왔던 것처럼 '꽃'은 불교의 종교적 교의의 엄숙함과 숭고함을 담아온 조형적 상징체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연꽃, 모란, 국화 등의 현상계 꽃의 이미지로 그려낸 단청문양 속에 진리의 법과 불국토를 펼쳤던 것이다. 그 꽃은 더 이상 자연현상계의 꽃이 아닌 것이다. 자연의 물성을 초월한 고차원적인 상징인 것이다. 전시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두 차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노 작가는 전시 기간에 맞춰 〈한국의 단청, 1권 화엄의 꽃〉을 출간한다. 511쪽에 이르는 책은 이번 사진전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심층 해설서다.

사진가 노재학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다. 사진과 건축, 불교철학, 미술사학 분야를 두루 독학했고 전통건축의 단청문양들을 근 20년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수학과 예술, 불교철학으로 익힌 안목과 사유체계로 단청문양에 담긴 형이상의 상징체계를 실증적으로 풀어냈다. 단청문양-사진-해석을 아우른 한국 단청문양의 집대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9년엔 〈한국산사의 단청문양 전국순회 사진전〉을 서울, 부산, 대구, 전주 등에서 열었다. 저서로는 〈한국산사의 단청세계(미술문화,2019)〉 〈한국의 단청,1권 화엄의 꽃(미진사, 2021)〉이 있다. 전시문의 (02)733-4448

지친 대중 위로하는 佛音 피아노병창


국악인 최준.

CHOI-JUN PIANO DIARY 2021

AGAIN, START(이젠~ 다시, 시작)
서울남산국악당 6.30 오후 7:30
국악인 최준 15번째 개인 콘서트

국악 · 서양 경계 허문 월드음악
전곡 최준 작곡 음원 발매 예정
'저녁 종송' 등 부처님세상 그려

판소리 병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면서 국악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국악인 최준(31)이 15번째 개인 콘서트를 연다.

6월 30일 오후 7시 30분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Again, Start(이젠 괜찮아질거야~ 다시, 시작)'는 코로나19로 지친 대중의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됐다.

최준은 이번 공연에서 'Again, Start' 등 피아노와 노래, 바이올린과 첼로의 아름다운 연주, 그리고 국악기 피리와 장구, 가야금과 대금으로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의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월드음악 15곡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되는 15곡의 음악은 모두 최준이 작곡했으며 공연 실황은 녹음하여 디지털 음원으로 발매될 예정이다.

첫 곡 Again, Start(이젠 괜찮아질거야~ 다시, 시작)는 코로나19 시대에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따뜻하게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Spring Rain, Summer Acacia, Lavender Flower 등 사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최준의 눈으로 바라본 부처님 세상을 표현한 Invocation(기도), 저녁 종송(夕鐘頌), one Mind(한마음), Anicca(무상), the way to Heaven(華嚴), Boundless(광대무변) 등이 피아노와 국악기의 합주로 연주된다. 여섯 번째 곡인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는 대행 스님의 게송을 읽고 작곡한 곡이다.

'피아노 병창'은 최준이 만들어낸 새로운 장르로 새로운 형태의 국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야금에 판소리가 더해지면 가야금 병창이 되는 것처럼 피아노에 판소리가 더해지면 피아노 병창이 되는 것이다. 최준은 피아노 연주에 판소리를 한다. 그것의 그의 장르다.

그렇게 국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최준은 발달장애2급 음악인이다. 하지만 절대음감의 소유자인 그는 일찍이 3시간짜리 판소리 흥보가를 외워서 완창하고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악보 없이 연주할 정도로 음악가 최준은 장애인이 아니다. '발달장애'라는 힘겨움 속에서 그가 오롯이 음악가로 서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주변의 응원이 있었다.

무엇보다 불교와의 만남이 큰 인연이었다. 어린 나이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던 그는 진단 직후에 불교를 만났다. 스님들의 염불소리가 좋아 염불을 따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새롭게 만난 것들이 음악으로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을 받아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예매는 인터파크에 6월 15일 이후 오픈될 예정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부 좌석만 오픈된다. (010-6411-1674)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